

# 트럼프, 경주 도착... APEC CEO서밋·한미정상회담 등 일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이틀 앞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국빈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에어포스원으로 불리는 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는 공항 도착 직후 주먹을 불끈 쥔 채 첫 인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올해 1월 취임 후 9개월여 만에 성사된 첫 방한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2019년 6월 한미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판문점을 방문한 바 있다. 트럼프의 국빈 방한은 2017년 이후 8년만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은 것도 처음이다.

이정은 국빈방문이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수행했고, 강경화 주미대사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한 가운데 국빈 방문 의전에 맞춰 의장대가 도열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 이날 김해공항 주변은 군, 경찰 등의 삼엄한 경비 속에 만일에 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조 장관 등 환영 나온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수행원들과 함께 경주로 이동하기 위해 '마린 원(미 대통령 전용헬기)'에 탑승,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헬기로 30여분 만에 경주 도착 후 '더 비스트(전용 리무진)'로 옮겨 타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조현 외교부 장관 영접을 받고 있다. /뉴스1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의전 수행...강경화 주미대사 등이 영접

### 트럼프, 공항 도착 후 주먹 불끈 쥐고 인사...의장대 사열

### '마린원', '더비스트' 동원 경주 도착... APEC CEO 서밋 등 참석

서밋'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이동했다. 트럼프는 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각국 기업인들과 만나 대미 투자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의 회동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에서 회담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 도착 후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당일 저녁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만찬에 참석한다. /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전시도 관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향을 염두에 두고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했지만 일정은 1박 2일로 단기간 머무른다. 방한 기간 중에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불참한다. /뉴스1

# “단체장 도전” 광주·전남 공직 출사퇴... 조기 과열 조짐

고위공직자, 산하기관장 등 출퇴가 사직, 광역의원 20여 명도 채비

3월5일 공직 사퇴 시한...다양한 변수와 효과에 조기 사퇴 잇따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공직 사퇴 시한을 4개월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출사퇴가 이어지면서 조기 과열 조짐도 낱고 있다.

29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권 교체와 거대 여당 효과가 더해지면서 6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출마 열기가 일찌감치 달아오르면서 공직사퇴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임기를 6개월 남겨 두고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광주시청 공무원인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보당 후보로 광주시장 선거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 중 한 명인 문인 문인 부구청장도 연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식 출마할 예정이다. 문 청장은 "11월 국비 확보 활동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을 비롯, 홍기월·박미정·명진·정무창·박수기·정다은

의원 등 광역의원 7~8명도 구청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두고 있어 공직사퇴 시한인 내년 3월5일 이전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여수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했고,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도 최근 명퇴 후 장성군수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윤영주 진도부군수와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도 각각 퇴임 후 보성군수와 완도군수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성희 사회서비스원 원장도 사직 후 목포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전남도의회에서는 17명의 의원이 단체장 출마에 뜻을 두고 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경현 기자

현행법상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5일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방선거 때면 통상 150~200명의 공직자들이 사직서를 내고 선출직에 도전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통상 시한을 2~3개월 앞둔 연말연시 또는 설 연휴 전에 공직 사퇴가 본격화됐으나 이번엔 4~5개월 전부터 러시를 이뤄 조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와 여당 효과, 여기에 컷오프 최소화 방침과 여론조사 비율 상향 가능성 등으로 공직자 출신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사퇴도 하루라도 빨리 선거관에 뛰어들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현 기자



## 강기정 시장,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참석

### 김민석 국무총리·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함께 희생자 추모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서울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등 지역 공공기관도 이날 청사 국기계양대에 조기를 걸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주관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 159명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억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유가족, 시민단체,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주관한 이태원참사 공식 추모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억식은 오전 10시29분 서울 전역에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영상, 추모사, 추모공연, 공동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져 희생자를 기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광주는 이태원참사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가장 먼저 '사망자' 대신 '참사 희생자'라는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며 사회적 애도의 출발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품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지키는 도시 광주가 되겠다"며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아울러 "광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으로부터 더 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는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추모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지난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사마당에서 유가족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광주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전 추모공연, 시 낭송,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헌화 및 애도 시간 등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광훈 기자

# 정청래 “이번 지선 가장 민주적 경선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이번 지선은 가장 민주적 경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정착하기까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눈물과 노력이 있었다”며 “의사결정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 정치라 봤을 때,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서 당원 권리가 확대되고 국민의 의사 비례해서 지방선거 결정되는 것은 지선 그 자체의 존재 이유와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뉴스1

이어 “지선 승리가 우리 지상과제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핵심요소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전체 구성원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지선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지선은 권리당원의 참여가 100%로 전면 확대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며 “자격 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 예외없는 부적격은 서류 탈락이다. (예외 있는) 부적격은 정상 참작을 하거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체제도 마련했다”고 했다. /뉴스1

# 월출산 2025

## 10.30.(목) ~ 11.16.(일)

### 월출산 기찬랜드 일원

# 국화축제